

##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와 형이상학\*

변 영 진

**【국문요약】**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어떤 언어 논리와 또 어떤 형이상학을 제시하는 지 다룰 것이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가 언어 논리로부터 형이상학을 근거 짓는 지 밝히려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한계를 ‘언어 내에서’ 그으려 할 때, 그 언어 논리는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이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구문론에 대한 사상을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 형이상학으로 확장시킨다. 언어(문장)가 가져야 하는 논리적 형식은 세계의 형식(또는 세계의 본질)이고, 그것은 오로지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과 더 붙어서만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 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명제는 ‘뜻’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이 뜻 있는 문장에서 ‘오로지 드러날 수 있다’고 표현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논리(논리적 구문론)로부터 근거 지으려 하는 형이상학은 신비적일 것이다.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언어 논리, 형이상학, 논리적 구문론, 언어의 말함과 보임.

접수일자: 2013.07.02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3.08.19 게재확정일: 2013.09.02

\* 본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세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몇몇 부분 수정했음을 밝힌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심사위원들의 논평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별도의 연구에서, 특히 그 비판적인 측면을 재고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1. 서론

필자는 다음 진술의 의미를 『논리-철학 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이하 『논고』로 약칭)의<sup>1)</sup> 사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은 논리와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는 그것의 토대이다. (Philosophy consists of logic and metaphysics: logic is its basis.)”<sup>2)</sup>

이 진술은 1913년 『논리 노트(*Notes on logic*)』의 기록이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논고』를 1918년 8월에 완성하였으므로, 정작 『논고』에는 없는 내용이다.<sup>3)</sup> 비트겐슈타인은 『논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바꿨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기된 진술의 의미를 다루려 한다.<sup>4)</sup> 또 위 진술에서 ‘형이상학’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지만,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비트겐슈타인은 『일기 1914-1916(*Tagebücher 1914-1916*)』(이하 『일기』로 약칭)<sup>5)</sup>에서 자신의 “작업”이 “논리의 기초들로부터” “세계의 본질로 확장된다”라고 밝히기 때문이다 (『일기』, 1916년 8월 2일). 이 글에서는 『논고』

1) 본 논문에서 『논고』 인용은 이영철 (2006)의 번역에 따르겠다. 『논고』 인용의 출처는 관례에 따라 진술의 해당 번호로만 표시하겠다. 예외적으로 『논고』 머리말의 인용에는 단지 ‘머리말’이라고 밝히겠다.

2) Wittgenstein (1979), p. 106.

3) 비트겐슈타인은 『논고』가 1918년 8월 완성되었음을 한 편지에서 러셀에게 알렸다: Wittgenstein (1995), p. 111.

4) 제기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진호 (2009) 참조.

5) 이 글에서 『일기』의 내용은 1984년 발간된 주어캄프사(Suhrkamp)의 비트겐슈타인 작품집 제 1권(1984a)에서 인용할 것이고, 인용 시에 관례에 따라 그 쪽수가 아닌 해당 일기가 작성된 연월일만을 표기하겠다.

』의 ‘철학’이 ‘어떤 논리’와 그것에 기초한 ‘어떠한 형이상학’으로 이뤄져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진술(“철학은 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는 그것의 토대이다.”)을 기준으로 볼 때, 『논고』의 해석은 두 부류로 대별 될 수 있다. 형이상학적 해석과 반(反)형이상학적 해석이 그것이다. 우선 형이상학적 경향을 대변하는 맥스 블랙(Max Black)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형이상학의 토대로서의 논리: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전반을 통해서 존재론적 함축을 담은 명료한 논리 본성의 관점을 기대한다. 논리는 형이상학을 이끌기 때문에 중요하다.”<sup>6)</sup>  
 “내가 오해하지 않았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연구 순서 즉, 논리의 본성으로부터 언어의 본성 그리고 ‘세계의’ 본성에 관한 연구 순서는 대략 최종 원고에서 작성된 순서의 반대이다. [...] 그러나 [『논고』에서] 형이상학을 하나의 단순한 부속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그 책은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7)</sup>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논리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형이상학)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블랙의 주장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논고』의 본문 첫째 문장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로부터 시작하는 형이상학적 진술들은 그 이후 대략 2.1 이후에 등장하는 언어의 논리(또는 본성)에 관한 진술들로부터 도출되는 내용이다. 블랙은 『논고』 초반부 형이상학적 진술들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로부터 이끌어졌으며, 세계의 본질을 해명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그는 『논고』의 초반 형이상학이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고,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철학의 핵심이라 믿는다.

6) Black (1964), p. 4.

7) Ibid., p. 8.

그리고 반 형이상학적 관점을 대변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브라이언 맥귀네스(Brian McGuinness)를 들 수 있다. 그는 블랙의 견해를 반박하며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블랙 교수의 생각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 초반부의] 존재론을 그의 언어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주장한다는 것이다. [...] 『논고』 초반부의 매력은 정말 철학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기대되어온 것처럼 [...],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결과들을 이끌어 냄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논고』] 초반부에 오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리스(Rhees) 씨의 의견에 동의한다. 형이상학을 논리 또는 우리 언어의 본성 위에 기초 지으려 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문법을 결정짓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 언어로부터 세계의 특징들을 추론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sup>8)</sup>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오직 언어 논리에 대한 이해이고 형이상학은 아예 없다는 것이 맥귀네스의 주장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논고』 초반부 이후 언어 논리에 대한 진술들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형이상학적 진술들은 어떤 철학적 의미가 없다. 맥귀네스는 비트겐슈타인이 그 책의 초반부에서 형이상학적 진술들을 통해 어떤 고유한 세계관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9)</sup> 비트겐슈타인의 중심 사상은 언어 논리로부터 세계의 본질에 대한 그 어떤 관점도 제시할 수 없음에 있으므로, 『논고』 초반부의 형이상학은 그의 철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귀네스는 『논리 노트』의 위 문장(“철학은 논리와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는 그것의 토대이다”)에서 논리의 토대에 있는 문제의 ‘그것’이 ‘형이상학’이 아니라 ‘철학’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sup>10)</sup>

<sup>8)</sup> McGuinness (1981), p. 62.

<sup>9)</sup> Ibid., p. 63.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그의 언어 논리를 주장한다는 점에 있어 블랙과 맥귀네스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논리로부터 그의 고유한 세계관을 제시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한다. 블랙은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논리에 기초한 형이상학을 주장했으며, 그것은 『논고』 초반부에 위치한다고 본다. 반면 맥귀네스가 보기에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언어 논리로부터 어떠한 형이상학도 이끌어내지 않기 때문에, 『논고』 초반부의 형이상학은 그가 주장하는 세계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블랙과 맥귀네스의 해석 모두 적절하지 못함을 피력하려 한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논고』의 “철학”은 “논리와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리는 그것[형이상학]의 토대”라고 온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 (『논리 노트』, p. 106). 그렇다면 형이상학이 배제된 언어 논리만을 『논고』의 철학으로 보는 맥귀네스의 이해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 논리로부터 이끌어내는 비트겐슈타인의 형이상학이 『논고』 초반부에 위치한 세계관으로 볼 수 없다면, 블랙의 해석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논리로부터 도출하는 세계관을 그 책의 초반부가 아닌 언어 논리를 논하는 부분에서 같이 제시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블랙과 맥귀네스의 해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는 당연히 『논고』의 ‘언어 논리’와 ‘형이상학’에 대한 적절한 고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언어 논리’의 관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어떠한 그의 형이상학’

10) 위 인용구에서 지적하듯이, 맥귀네스의 주장은 러쉬 리스(Rush Rhees)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Rhees (1970), pp. 24-25. 하지만 그들(리스, 맥귀네스)의 해석은 억지스러워 보인다. 논리에 기초한 ‘그것’이 ‘형이상학’이 아니라 ‘철학’이라면, 철학을 이루는 형이상학의 의미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논리 노트』 원문에서 보이듯이 논리를 토대 짓는 ‘그것’은 ‘형이상학’이라고 읽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을 이끌어내는지 다뤄 보겠다.

## 2. 논리적 구분론: 언어의 논리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뜻 있는(sinnvoll)’ 언어의 논리뿐만 아니라 ‘뜻 없는(sinnlos)’ 언어의 논리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보다 강조하는 ‘뜻 있는’ 언어에 초점을 두고, 그가 어떠한 ‘뜻 있는’ 언어의 논리를 제시하는지 다루겠다.<sup>11)</sup> 그에 따라 필자는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뜻 있는 언어의 논리에 대한 논의를 다음의 진술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이 책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로 제기함이 우리의 언어 논리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것을—내가 믿기에는—보여주고 있다. [...]”

이 책은 그러므로 생각에 한계를 그으려 한다. 또는 차라리,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표현에 한계를 그으려 한다. 왜냐하면 생각에 한계를 그으려면 우리는 이 한계의 양쪽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따라서 우리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계는 오직 언어에서만 그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가 될 것이다.”(머리말)

11)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항진 명제와 같은 논리적인 문장을 ‘뜻 없는(sinnlos)’ 언어로 보고, 그에 대한 논리를 다루고 있다. 거기서 그는 ‘뜻 있는’ 언어의 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뜻 없는’ 언어의 논리를 통해 또한 세계 본질에 대한 이해를 이끌고 있다. 이 점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고』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리학의 명제들이 동어 반복들이라는 것은 언어의, 그리고 세계의, 형식적-논리적-속성들을 보여준다.” (6.12)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강조하는 점, 즉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료히 말하고 그럴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함’(머리말, 7 참조)을 고려한다면, ‘뜻 있는’ 언어의 논리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핵심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후 본 글에서 다루겠지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언어란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뜻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여기 『논고』 머리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논리를 다룰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언어 논리를 오로지 언어의 ‘한계 내에서’ 규정할 거라 밝히고 있다. 그것은 뜻 있는 언어의 논리를 언어 밖의 것을 통해 설명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언어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 언어의 한계를 제시하는 건 그가 볼 때 뜻 있는 언어의 ‘말함’을 ‘말함 밖에 있는 것’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불합리하게 보인다. 이 점에 대해 맥귀네스와 유사하게 반 형이상학적 입장에 있는 피터 윈치(Peter Winch)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실제로 『논고』에서 [언어의] 뜻 있음과 뜻 없음의 구분을 이 구분 자체와 상관없이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들의 [...] 이해를 빌어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거부하는 생각의 한계 양쪽 측면을 고찰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 오히려 [머리말에서] 그 한계 자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적인 한계 내에서만 그 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 하나의 [뜻 있는] 문장을 구성하고, 다른 어떤 표현이 그것을 구성하지 못함을, 언어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마치 한 문자의 참의 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할 때와 같이) 발견할 수 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그 구분을 오로지 언어적 표현들의 특징들에 관계해서만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윈치의 지적은 비트겐슈타인의 뜻 있는 언어의 논리를 다룸에 있어 『논고』 머리말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머리말에서 그의 언어 논리에 대해 집약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언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핵심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뜻 있음(Sinnvollsein 또는 Sinnhaftigkeit)’을 ‘어떻게’ 언어의

<sup>12)</sup> Winch (1987), p. 7.

특징들에 의해 오로지 ‘언어 내에서’ 한계 짓는 지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사고의 한계를 그으려 한다면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고 자체가 아닌 사고에 대한 언어의 한계지음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언어의 뜻 있음을 그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을 통해 한계 짓는다면,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언어의]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einfach Unsinn)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제, ‘언어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을 통해 언어의 한계를 그으려는 시도가 단순히 무의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sup>13)</sup>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뜻 있음을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규정하려 했다면, 그의 언어 논리는 ‘논리적 구문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 『논고』의 진술들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논리로서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어떻게 언어 내에서 언어의 뜻 있음을 규

13) 『논고』의 ‘무의미(Unsinn)’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의 6.54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을 때야만 가능할 것이다. “나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서 하나의 주해 작업이다. 즉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을 통해—나의 명제들을 딛고서—나의 명제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 버려야 한다.) 그는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세계를 올바로 본다.” (강조 필자) 하지만 『논고』의 ‘무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 내에서 일치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그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또는 ‘단호한 해석’)의 경향을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논고』의 ‘새로운 해석’은 코라 다이아몬드(Cora Diamond)의 1988년 한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특히 북미에서 지배적이다. 거칠게 볼 때, ‘새로운 해석’의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6.54의 ‘무의미’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논고』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해석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 글에서의 형이상학적, 반 형이상학적 해석들과 비교하자면, 『논고』에는 ‘언어 논리’ 그리고 ‘형이상학’에 대한 어떤 ‘철학’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해석’과 연관하여 ‘새로운 해석’의 의의에 대해서는 볼프강 쾨즐러(Wolfgang Kienzler, 2008)를 참조하시오.

정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논리적 구문론에서 기호의 의미는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 구문론은 기호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서도 수립 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 구문론은 오직 표현들의 기술들만을 전제할 수 있다.” (3.33)

“논리적 구문론의 규칙들은 각각의 기호가 어떻게 지칭하는지를 우리들이 알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되어야 한다.” (3.334)

위 진술들의 의미는 『논고』 3.331과 3.332에서 나타나듯이 러셀의 유형 이론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거기서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이 유형 이론을 통해 언어 논리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언어 외부로부터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그는 ‘논리적 구문론’이 언어 논리로 제시된다면 그러한 유형이론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러셀은 언어의 뜻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 언어(문장)를 이루는 구성요소(기호)들의 ‘의미(Bedeutung)’<sup>14</sup>들을 구분한다 (3.331 참조). 러셀은 예를 들어, 문장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의 뜻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그 구성요소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사랑함’에 해당하는 ‘의미’들의 차이를 ‘언어 외부에서’ 규정한다. 단어 ‘플라톤’은 개별 대상인 플라톤을 ‘의미하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를 그리고 ‘사랑함’은 개념으로서의 사랑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할 것이다. 또 러셀은 그러한 ‘의미’들의 유형을 구분—플라톤과 소크라테스라는 개별 대상과 사랑이라는 개념의 구분—을 할 것이다. 그러한 유형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단어들을 담고 있는 ‘플라톤은 사랑을 소크라테스이다’와 같은 문장의 ‘뜻 없음’을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어떤 개

14) 이 글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용어 ‘Bedeutung’을 ‘의미’로 번역하고 그 때 항상 작은따옴표를 하여 다루겠다.

별 대상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사랑함’을 그러한 대상들의 특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그 유형을 구분했을 때에만, 두 문장(‘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와 ‘플라톤은 사랑을 소크라테스이다’)의 ‘뜻 있음’ 그리고 ‘뜻 없음’이 각각 설명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러셀의 시도는 언어(‘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의 뜻 있음의 논리를 기호들이 ‘언어 외적’ 무엇을 ‘의미’함을 통해 제시하려는 데 있다. 러셀의 유형 이론은 언어의 논리를 ‘언어 밖의 것’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문장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의 뜻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러셀이 전제한 것—예를 들어, “단어 ‘플라톤’은 어떤 개별적인 대상 ‘플라톤’을 의미한다”—은 언어 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언어의 한계 너머로부터 (뜻 있는) 언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윈치의 진술에 따르자면, 러셀은 언어의 뜻 있음과 뜻 없음의 “구분을 오로지 언어적 표현들의 특징들에 관계해서” 하지 않으며, “언어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

비트겐슈타인은 3.33과 3.334에서 언어(문장) 요소인 기호들의 쓰임(효용)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언어의 뜻 있음 또는 뜻 없음을 ‘언어 내에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주장하는 언어 논리가 ‘논리적 구문론’임을 의미할 것이다. 기호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그리고 ‘사랑한다’는 각각 문장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에서 적법한 쓰임을 갖고 있으므로, 그 문장은 뜻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플라톤은 사랑을 소크라테스이다’가 뜻 없음의 이유는 그 구성요소인 기호들, ‘플라톤은’, ‘사랑을’ 그리고 ‘소크라테스이다’가 그 속에서 정당한 효용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문장의 구성요소들이 각각 모두 “논리적 구문론의 규칙”에 따른다면, 그것의 확인을 통해 뜻 있는 언어의 논리를 ‘언어 내에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문장의 구성기호

들이 “논리적 구문론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의 확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언어의 뜻 없음을 마찬가지로 ‘언어 내에서’ 규명할 수 있다 (3.334).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문장)을 이루는 기호의 ‘의미’가 또한 그러한 기호의 올바른 구문론적(문법적) 기능(효용)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어떤 기호의 ‘의미’가 러셀의 경우에서처럼 언어 밖에서 부터가 아니라, 그 ‘언어(문장) 내에서’ 주어짐을 뜻한다.

“오직 명제만이 뜻을 가진다. 오직 명제 연관 속에서만 이름은 의미를 가진다.” (3.3)

단어 ‘플라톤’의 ‘의미’는 뜻 없는 문장, ‘플라톤은 사랑을 소크라테스이다’에서는 밝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구성요소(기호)들이 문장 속에서 정당한 구문론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어 ‘플라톤’의 ‘의미’는 뜻 없는 문장, ‘x는 사랑을 소크라테스이다’ 내에서 x로서 파악될 수가 없다. 하지만 단어 ‘플라톤’의 ‘의미’는 뜻 있는 문장,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의 맥락 속에서 그 단어의 효용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단어 ‘플라톤’은 ‘x는 소크라테스를 사랑한다’의 ‘x’자리에서 적절한 구문론적 기능(효용)을 가지므로, 그것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기호의 ‘의미’는 그것을 포함한 모두 문장요소들이 구문론적으로 적법하게 기능하고 있다면, 그 ‘문장(언어) 내에서의’ ‘쓰임(효용)’에 의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위에서 인용된 『논고』 머리말의 진술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를 고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언어의 뜻 있음의 논리가 그 ‘언어 내에서’ 한계 그어져야 한다고 할 때, 그러한 논리는 ‘논리적 구문론’을 의미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또한 언어의 구성요소(기호)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그 ‘언어 내에

서’ 그 언어(문장)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반 형이상학적 해석자들(맥귀네스, 원치 등)은 이와 같은 주장을 위 3.3, 3.33 그리고 3.334를 중심으로 하는데, 필자는 그들의 해석에 동의한다.

하지만 3.3에서 언급되는 ‘이름’에 대한 반 형이상학적 해석자들의 견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들은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언어 내에서’ 그 ‘의미’를 갖는 ‘이름’이 세계의 ‘단순한 대상’과 대응함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sup>15)</sup> 『논고』에서 진술되는 ‘이름(Name)’이 대표하는 세계의 ‘단순한 대상’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반 형이상학적 해석자들의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와 ‘언어 분석’의 차이를 간과함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언어 논리로 ‘논리적 구문론’을 주장함은 옳다. 그러나 ‘언어 논리’에 부합되는 언어의 세계와의 특정한 관계, 즉 언어의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음’을 전제하지 않고 ‘언어 분석’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뜻 있는 언어 분석을 통해 그러한 언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세계의 가능한 현실)과 부합하는 언어의 진정한 구성요소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할 수 있는(뜻 있는)’ 언어의 진정한 구성요소는, 『논고』에서 반복되어 진술되듯이, 세계의 ‘단순한 대상’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반 형이상학적 해석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가 ‘언어 내에서’ 한계 그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언어의 분석 또한 오로지 ‘언어 내에서’ 한정되어 수행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논고』에서 반복되는 진술, ‘이름’은 세계의 ‘단순한 대상’을 ‘지시함(zeichnen)’ 또는 ‘대표함(vertreten)’을 부정한다. 말하자면, 반 형이상학적 해석자들은 ‘이름’의 ‘의미’는 그것이 속

15) 본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용어 ‘einfacher Gegenstand’ 또는 ‘Gegenatand’를 다룰 때, 항상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단순한 대상’ 또는 ‘대상’이라 언급하겠다.

한 뜻 있는 (요소)문장에서 그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주어지고, 그러한 ‘이름’의 언어 외적 관계는 아예 없다고 본다.<sup>16)</sup> 본고에서는 『논고』 머리말의 진술을 중심으로 볼 때, 언어의 뜻 있음이 오로지 ‘언어 내에서’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또한 뜻 있는 언어 구성요소들의 ‘의미’는 오로지 그것이 속한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언어 내에서’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요소 명제의 구성요소인 ‘이름’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분석’의 수행에 있어 또한 ‘언어 외적인 것’을 고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가—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개별 대상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닌—‘단순한 대상’을 지시하는 ‘이름’을 뜻 있는 언어의 진정한 구성기호로 전제하고 그러한 구성을 가진 언어(요소 명제)의 언어 논리(논리적 구문론)을 제시한 이유는, 언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서 ‘언어 분석’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문장)의 뜻 있음이란 언어가 세계의 어떤 현실을 ‘말할 수 있음’이라 봐야 한다. 그는 뜻 있는 문장이 현실의 가능한 ‘그림’ (또는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4.01 참조). 그리고 ‘그림’으로서의 문장이 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기술한다고 보므로, 뜻 있는 문장이 ‘말할 수 있는’ 바는 어렵지 않게 가능한 현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4.023 참조). 적어도 『논고』에 따르자면 언어 논리에 따르는 뜻 있는 문장이 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음(표상할 수 있음)’은 의심하기는 힘들

16) 이와 같은 경향의 반 형이상학적 해석에는, 위에서 소개한 McGuinness (1981)과 Winch (1987) 외에 대표적으로 Ishiguro (1969)가 있다. 『논고』와 『철학적 탐구』에서 언어의 가능성이 다름없이 언어 외부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그 ‘효용(쓰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다.17) 이 점은 논리적 언어의 비교와 함께 다음의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상징만으로도 그것들이 참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논리적 명제들의 특별한 표지이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 논리 철학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따라서 비-논리학적 명제들의 참 또는 거짓이 명제만으로는 인식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사실들 중의 하나이다.” (6.113)

비트겐슈타인의 “중요한 사실들 중의 하나”는 뜻 있는 문장(비-논리학적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그 문장 자체가 아니라 현실 상황과 비교 속에서 주어진다. 반면 논리적 문장은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항진 명제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의 경우 기호들의 이해만으로 문장이 절대적으로 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또는 모형으로서의 뜻 있는 문장, 예를 들어 ‘오늘은 비가 온다’는 그렇지 않다. 그것의 참 또는 거짓은 오로지 현실과의 ‘일치’ 혹은 ‘불일치’를 통해 결정된다. 뜻 있는 문장은 현실과의 비교 속에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2.21, 2.222 참조). 뜻 있는 문장은 오직 참인 그림일 수도, 오직 거짓인 그림일 수도 없을 것이다 (2.221, 2.225 참조). 따라서 현실의 가능한 그림(또는 모형)으로서의 언어(문장)의 뜻 있음은 참, 거짓의 중립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뜻 있는 문장은 현실의 가능한 상황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의 뜻 있음이 현실의 가능한 상황을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언어 외적 요소를 고려해서 그

17) 이 점과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발행 후 빈 학단과의 대화에서 이전 논리적 표기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기호 논리학을 구성할 때, 프레게, 페아노, 그리고 러셀은 실제로 그것을 오로지 수학 하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사태의 표상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Wittgenstein (1984c), S. 46.

의 ‘언어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어 외적 요소란 뜻 있는 언어를 통해 ‘말할 수 있는’ 대상, 즉 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오로지 하나의 “완전한(vollständig)” ‘언어 분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3.25). 그에 따르면, 언어는 그 ‘완전한 분석’에 의해 ‘단순한 대상’들에 대응하는 ‘단순 기호들’의 배열에 이르러야 하며 그 단순 기호란 ‘이름’이다 (3.202, 3.21 참조). 그러므로 ‘완전한 언어 분석’의 결과는,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의 진정한 구성 요소가 세계의 ‘단순한 대상’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임에 있을 것이다.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문장)은 결국에는 ‘대상’들을 지시하는 ‘이름’들의 연계라는 점이 ‘완전한 언어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 점은 『철학적 탐구(Philosophische Untersuchungen)』의 다음 구절을 통해 명백히 나타난다.

“[...] 이름은 본래 단순한 것을 지칭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가령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노통(Nothung)’이란 낱말은 통상의 고유명사이다. 노통 검(檢)은 일정하게 복합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이 달리 복합되어 있다면, 노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노통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란 문장은 노통이 아직 온전하게 있건 이미 산산조각이 났건 간에 명백히 뜻을 가진다. 그러나 ‘노통’이 어떤 한 대상의 이름이라면, 노통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이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름에는 아무런 대상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노통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란 문장에는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낱말이 들어 있고, 따라서 그 문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자, 그러나 그것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낱말들은 하여간 어떤 것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뜻을 분석할 적에는 ‘노통’이란 낱말은 사라지고 그것 대신에 단순한 것을 명명하는 낱말들이 등장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낱말을 본래적인 이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철학적 탐구』, §39)

비트겐슈타인은 뜻 있는 언어(문장)의 ‘말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언어의 진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노통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히 뜻 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언어(문장)의 뜻 있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음’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듯하다.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이란 그것이 가능한 현실에 대한 기술 가능성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은 언어(문장) 요소들에 대응하는 현실의 요소들이, 그 언어(문장)이 표현하는 대로,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문장(‘노통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이 표현하는 대로 ‘노통’이 실제로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장은 참이다. 그리고 문장이 언표한 바와 다르게 ‘노통’이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문장은 거짓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어 ‘노통’에 대응하는 대상이 이 세계에 아예 없는 경우—그것이 산산이 부서진 경우—, 그러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비트겐슈타인은 복합체로서의 노통에 대해 기술하는 ‘노통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분석하면, 결국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듯 보이는 ‘노통’은 사라질 거라 보고 있다 (2.0201 참고). 그리고 그 결과로 완전히 분석된 언어(문장)는 오로지 이 세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대상’만들을 지시하는 ‘이름’들의 배열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통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 완전히 분석되면, 이 세계에 어떤 경우든 존재하는 ‘대상’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의 연계로 표현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가 ‘논리적 구문론’이고, 그를 통해 언어의 뜻 있음이 오로지 ‘언어 내에서’ 제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 논리에 따르는 언어란 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는’ 언어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분석은 그 대상인 현실과 조화로운 한에서 수행된다고 봐야 한다. 그로부터 일상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단어(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뜻 있음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뜻 있는 언어가 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음'은, 언어(문장)을 이루는 (일상적인) 단어들이 분석되어 더 이상 기술될 수 없고 명명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들의 배열로 봄으로써 설명된다 (3.26 참조).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완전한 언어 분석을 통해 '단순한 대상'이 '이름'의 '의미'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것 같다:

“이름은 대상을 의미한다. 대상은 이름의 의미이다. ('A'는 'A'와 동일한 기호이다.)” (3.203)

반 형이상학적 해석자들은 '논리적 구문론'을 『논고』의 유일한 언어 논리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언어의 구성요소인 기호들의 '의미'도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 3.203과 같은 진술들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름'의 '의미'가 '단순한 대상'이라고 전제함으로써 (3.203) 그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언어(문장)이야말로 뜻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언어 논리를 '언어 외부에서' 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3.203에서 언어의 구성 요소인 '이름'들이 '대상'들을 '의미함'으로 인해 언어의 뜻 있음을 규정하는 것 같다. 그러한 규정은 언어 외부의 것 또는 '말할 수 있는' 밖의 것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규정을 하는 것이 된다. 위에서 (러셀의 유형 이론과 관련하여) 보았듯이, “이름 'A'는 대상 'A'를 의미한다”와 같은 진술은 언어에 한계를 벗어나 있다. 하지만 3.203의 '의미'에 대한 언급을 진지하게 인정한다면, 그로 인해 비트겐슈타인은 (이 절의 시작에서 제시된) 『논고』 머리말 진술<sup>18)</sup>을 스스로 여기게 될 것이다.

더구나 3.203에서 기호—‘이름’—의 ‘의미’는 다음의 ‘논리적 구문론’과 관련하여 제시된 기호의 ‘의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어떤 기호가 [문장 내에서] 쓰이지 않는다면, 그 기호는 의미가 없다.” (3.328) 이미 살펴본 바에 동일하게, 3.328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호(이름)’의 ‘의미’가 오로지 언어(문장) 내에서 밝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3.203에서 ‘이름’의 의미가 언어 외부의 ‘대상’을 통해 주어진다는 언급은 이에 충돌될 수밖에 없다. 종합해보자면, 언어(문장)의 뜻 있음을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언어 내에서 규정하고, 또 그를 통해 기호(‘이름’)의 ‘의미’의 규정을 마찬가지로 언어 내에서 하고자 한다면, 기호(‘이름’)의 언어 외적 ‘의미’ 규정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3.203에서의 ‘의미’ 정의는 언어 논리를 ‘언어 내에서’ 규정하려는 시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논고』에서 기호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중적 사용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풀릴 여지가 있을 것이다. 1. 뜻 있는 언어 논리(논리적 구문론)를 통해 ‘언어 내에서’ 규정되는 ‘이름’의 ‘의미’; 2.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이름’의 ‘대상’을 ‘지칭함’ 또는 ‘대표함’으로서의 ‘의미’. 이러한 이중적 사용을 통해 『논고』의 용어 ‘의미’는 일관적으로 해석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3.203에서 ‘의미’를 ‘언어 논리’가 아닌 ‘언어 분석’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칭함’ 또는 ‘대표함’으로 본다면, 『논고』의 언어 논리를 오로지 ‘언어 내에서’ 한계 짓고자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지 않는다. 언어 논리(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기호의 ‘의미’가 제시된다고 할 때, 그것은 3.203의 ‘의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또 뜻 있는 언어가 ‘말할 수 있는’ 언어 외적인 것과 조화롭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18) “그러므로 한계는 오직 언어에서만 그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가 될 것이다.” (머리말) 이 진술은 이미 본고 2절의 초반부에 인용되었다.

분석 결과에 기인한 언어 논리가 ‘언어 밖에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뜻 있는 언어를 구성하는 기호(이름)들은 끝내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세계의 어떤 ‘단순한 대상’을 지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분석 결과가 그대로 (뜻 있는) 언어의 논리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세계의 어떤 ‘대상’들을 지시하는 ‘이름’들의 배열이 곧 뜻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퉁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를 완전히 분석했을 때, 그것은 사실 ‘단순한 대상’들을 지시하는 ‘이름’들의 배열 ‘A-B-C-D’라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A-C-B-C’가 또한 뜻 있는 언어를 표현한다고 보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분석 결과는 언어의 뜻 있음을 규정하는 언어 논리의 ‘필요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언어의 뜻 있음은 언어 분석의 조건하에, 그러나 오로지 ‘언어 내에서’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제시된다. 언어 분석 결과가 적용될 때, 뜻 있는 (일상) 언어는 ‘대상’들을 대표하는 ‘이름’들만의 연계로 구성된 요소 명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의 뜻 있음은 이제 ‘언어 내에서’ ‘이름’들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논리적 구문론’이란 언어의 구성 요소(기호)들이 그 ‘언어(문장) 내에서’ 적법한 쓰임을 갖는지를 의미하므로, 언어의 궁극적인 언어 논리는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A-B-C-D’라는 요소 명제에서, 각각의 ‘이름’들, ‘A’, ‘B’, ‘C’ 그리고 ‘D’가 모두 적법하게 구문론적으로 쓰임이 확인되면, 그를 통해 원래 문장 ‘노퉁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의 뜻 있음이 ‘언어 내에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그 각각의 기호들(‘A’, ‘B’, ‘C’ 그리고 ‘D’)의 ‘의미’들은 마찬가지로 ‘언어 내에서’ 비로소 확정된다.

이 절에서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를 ‘논리적 구문론’으로 보고자 했다. 이 점에 있어 필자의 견해는 반 형이상학적 해석과 유사하다. 하지만 필자는 그들과 다르게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언어 논리를, ‘언어 분석’이 적용된,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언어의 ‘뜻 있음’은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뜻 있는 언어 분석이 수행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의 진정한 구성기호는 ‘단순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이다.
- (3) 언어의 뜻 있음 또는 말할 수 있음의 논리는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규정된다.
- (4) 언어(문장) 구성요소—‘이름’—의 ‘의미’는, 오로지 그러한 요소들이 구문론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효용)되는 언어(문장) 속에서 확인된다.

### 3. 형이상학: 세계의 논리

앞에서 지적했듯이 블랙은 비트겐슈타인이 형이상학을 언어 논리로부터 이끌어낸다고 생각한다.<sup>19)</sup> 더구나 그것은 『논고』의 초반부에 기술된 세계관이라는 것이 블랙의 견해이다. 그가 볼 때 비트겐

19) 블랙은 사실 이 글에서 다루는 ‘논리적 구문론’ 뿐만 아니라, ‘그림 이론’ 또한 『논고』의 뜻 있는 언어 논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언어 논리로부터 형이상학이 도출된다는 것이 블랙의 생각이다. Black (1964).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에 대해서는 이 글의 후반부(4절)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슈타인의 형이상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전 형이상학의 배경에 반해 비트겐슈타인 존재론의 뛰어난 혁신성은 우주, 즉 ‘세계’를 사물들의 총계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계로 봄에 있다 (1, 1.1). 이 점을 통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데카르트, 그리고 사실 어떠한 고전적 철학자들과도 [...] 상당히 구분된다. 형이상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최상의 일반성에 관한 진리들을 구할 때, 그들은 보통 명명될 수 있는 어떤 독립체, 또는 『논고』의 언어에 따르면 ‘사물’에 대한 탐구를 생각한다. [...]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전통에 급격하게 반대한다. 그는 처음부터 한 이름에 의해 지칭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거부한다.”<sup>20)</sup>

『논고』 초반부에 등장하는 형이상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의 가능한 현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뜻 있는)’ 언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름’이 지시하는 ‘단순한 대상’을 통해서만 세계관이 제시될 수 없다. ‘단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뜻 있는 언어를 통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것(‘단순한 대상’)들은 “논리적 공간”에서 그들 간의 어떤 결합을 할 때, 언어를 통해 ‘말할 수 있는’ 세계의 가능성을 만든다 (1.13). 세계의 가능한 현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언어 분석에 의해 결국 ‘단순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의 연계, 즉 요소 명제들의 총계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요소 명제는 가능한 원자적 현실로서 “사태(Sachverhalt)”를 ‘말할’ 것이다 (2.01). ‘이름’들만으로 이뤄진 요소 명제들은 그 진리값(참 또는 거짓)에 있어 서로 독립적일 수밖에 없다 (2.0211 참조). 한 요소 명제의 진리값은 오로지 그 구성요소(‘이름’)들에 해당하는 ‘단순한 대상’들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요소 명제가 ‘말하듯이’ 실제 이 세계에 그런 ‘단순한 대상’들의 관계가 있다면, 그 문장의 진리값은 참이

20) Black (1964), pp. 27f.

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이름’들만으로 이뤄진 어떤 요소 명제가 참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사태는 원자적 사실로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뜻 있는) 요소 명제는, 그것이 참인 한, 그것을 통해 ‘말하는’ 사태는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존재하는 사태들 또는 원자적 사실들의 총합은 세계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다 (2.04 참조).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1)으로서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논리적 원자주의의 세계관이 『논고』 초반부의 형이상학을 이루고, 그것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논리로부터 도출해내는 궁극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블랙의 견해이다.

이 글에서 논의된 바를 전제해서 보자면, 『논고』 초반부의 형이상학은 언어 논리로부터 직접 도출된 세계관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 논리의 제시를 위해 수행된 언어 분석으로부터 이끌어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뜻 있는 언어의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 언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을 고려하여 언어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다뤘다. 뜻 있는 언어의 진정한 구성요소가 ‘단순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임을, 그것의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음’을 통해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의 특징과 관련하여 ‘말 되어질 수 있는(언표될 수 있는)’ 세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뜻 있는 언어는, 그것이 참인 한, 세계의 사실들을 ‘말한다(모사한다)’. 그에 따라 이 세계는 (말 되어지는) ‘사실들의 총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뜻 있는 언어 논리(논리적 구문론)는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규정되므로, 그로부터 바로 세계관이 도출될 수는 없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는 언어의 분석의 결과가 적용되어 제시되므로, 그것은 이미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의 특징을 고려한 언어 논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서의 세계관은 언어 논리에 기초한 세계관,

즉 형이상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블랙이 해석하는 형이상학은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세계관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논고』의 결정적인 형이상학은 ‘사실들 또는 원자적 사실들의 총합’으로서의 세계 인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학자로서 비트겐슈타인이 구하는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들 또는 원자적 사실들의 총합’으로서의 세계는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문장)들을 통해, 그것들이 참일 때, ‘언표되는(말 되어지는)’ 세계에 대한 이해이다. 그런 세계 이해의 주체는 철학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연과학자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고트프리트 가브리엘(Gottfried Gabrie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비트겐슈타인]의 철학함의 목적은 사실의 총합으로서 이해되는 세계 인식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과학 또는, 일반적으로 말해 (철학 외) 학문의 과제이다.) 또 그것은 그러한 인식의 조건들에 대한 분석도 아니다. (그것은 과학이론의 과제일 뿐이다.) 오히려 그의 목적은 세계, 그러니까 전체로서 이해되는 세계를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 [...]”<sup>21)</sup>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어떻게 뜻 있는 언어 논리를 오로지 ‘언어 내에서’ 한계 지을 수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의 세계에 관해 ‘말할 수 있음’의 특징을 고려할 때,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의 한계 규정을 통해 또한 ‘말 되어질 수 있는(언표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규정은, 그것이 참일 때, 존재하는 세계의 한계를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논고』 초반부에 기술된 ‘사실들 또는 원자적 사실들의 총합’이라는 한계 규정이다. 하지만 그런 세계관은 비트겐슈타인이 구하는 형이상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21) Gabriel (1991), S. 23.

언어란 “자연 과학의 명제들”(6.53)이고, 그것이 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자연과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자연 과학의 명제들’이 참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분석은 개별 자연과학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학이론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뜻 있는 언어가 참일 때, 그로부터 ‘언표되는(말 되어지는)’ ‘사실들 또는 원자적 사실들의 총합’이라는 세계 인식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모두를 아우르는 세계관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은 “모든 사건과 어떠한-있음 밖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과 어떠한-있음은 우연적이기 때문이다.” (6.41) 만일 비트겐슈타인이 뜻 있는 언어를 통해 ‘말할 수 있는’ 현실의 총계라는 세계관을 진정 추구한다면, 그런 형이상학은 자연과학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서 있어, “[...] ‘철학이란 낱말은 자연 과학들의 위 아니면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해야지, 자연 과학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 (4.111)<sup>22)</sup>

가브리엘이 주장하듯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형이상학적) 목적은 ‘전체로서 세계’를 올바르게 봄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논리에 기초하여 어떠한 ‘전체로서의 세계’ 인식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비트겐슈타인의 궁극적 형이상학은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는, 뜻 있는 언어를 통해 ‘말해질 수는 없지만 오로지 드러낼(보일) 수 있는(nicht gesagt, sondern nur gezeigt werden kann)’ 것에 대한 이해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는’(뜻 있는) 언어 논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언어 논리)을 통해 비로소 언어가 ‘드러내는

22) 4.111의 이 진술은, 『논고』 이전에 이미 『논리 노트』에, 이 글의 문제된 구절(“철학은 논리와 형이상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리는 그것의 토대이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는 ‘보여지는’ 것이 우연적인 세계의 저변에 있는 “비-우연적인” 것이라 보고 있다 (6.41). 뜻 있는 언어는 세계의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음’의 특징 외에, 또한 세계의 본질을 ‘드러냄’의 특징을 갖는다. 세계의 본질은 언어 논리(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보여질 수’만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어 논리를 통해 세계의 본질의 이해에 닿는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한 하나의 지칭 방식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지칭 방식이 하나의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리고 철학에서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즉 개별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늘 되풀이해서 실증되지만, 모든 개별적인 것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세계의 본질을 해명해 준다.” (3.3421)

“기호는 기호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논리적 형식을 확정한다.” (3.327)

3.3421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나의 가능한 [지칭] 방식(eine mögliche Bezeichnungsweise)’은 (일상적인)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을 명확히 보일 수 있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요소 명제를 명기하는 표기법일 것이다. 요소 명제는 ‘단순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요소 명제가 적절히 표기될 때,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을 명확히 보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세계의 본질’이 해명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3.327에서 진정한 ‘기호’는 ‘이름’일 것이므로, “기호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이란 ‘이름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을 뜻한다. 따라서 ‘이름’들만으로 이뤄진 지칭 방식에서 그 ‘이름’들 모두가 적법하게 사용된다면, 그를 통해 ‘논리적 형식’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서 보자면, ‘이름’들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확정되는 ‘논리적 형식’은 ‘세계 본질’의

해명에 해당한다.

‘논리적 형식’은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확정”(3.327)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그는 이 주장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전제하는 언어의 형식을 거부하고 있다. 이 점은 다시 ‘언어 분석’과 관련해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문장)의 형식—주어-술어 형식, 이항-관계 형식 등과 같은—이 진정한 ‘논리적 형식’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문장 ‘그 의자는 갈색이다’와 ‘그 의자의 표면은 갈색이다’는 ‘동일한’ 주어-술어 형식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문장은 주어에 해당하는 ‘그 의자’와 ‘그 의자의 표면은’, 그리고 동일하게 술어로 보이는 ‘갈색이다’로 정당하게 분석되는 것 같다. 하지만 두 문장이 ‘말하는’ 사실, ‘그 의자는 갈색이다’와 ‘그 의자의 표면은 갈색이다’에서 과연 ‘동일한 형식’이 발견될 수 있는가에 비트겐슈타인은 회의적이다. 이 점은 『논고』 발행 후에 있었던 다음의 빈 학단과의 대화에서 명백해 진다.

“‘ $\phi x$ ’와 같은 상징은 단순한 논리적 관계들이 문제일 때 꽤 유용해 보인다. 이 상징은 ‘ $\phi$ ’이 하나의 술어이고 ‘ $x$ ’가 가변적 주어를 표현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태들을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상징 의미가 우리의 실제 언어와 달리 굉장히 단점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의 주어-술어 형식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완전히 틀렸다. 왜냐하면 현실에 있어 하나가 아닌 굉장히 많은 주어-술어 형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하나의 유일한 주어-술어 형식만이 있다면, 모든 명사들과 모든 형용사들은 서로 대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모든 단어들은 동일한 군에 속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는 이미 그것이 잘못임을 보여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 의자는 갈색이다(Der Stuhl ist braun)’ 그리고 ‘그 의자의 표면은 갈색이다(Die Oberfläche des Stuhls ist braun)’. 그러

나 ‘갈색(braun)’ 대신에 ‘무거운(schwer)’으로 대체했을 때, 나는 첫 번째 문장을 말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장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또한 ‘갈색(braun)’이라는 단어가 이미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sup>23)</sup>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언어(문장) 형식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있다. ‘그 의자는 갈색이다’와 ‘그 의자의 표면은 갈색이다’는 각각 ‘그 의자는’과 ‘갈색이다’ 그리고 ‘그 의자의 표면은’과 ‘갈색이다’로 분석됨으로써, ‘하나의 동일한’ 주어-술어 형식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술어라고 생각되는 ‘갈색이다’ 자리에, 마찬가지로 술어처럼 보이는 ‘무겁다’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전자(‘그 의자는 무겁다’)는 ‘뜻 있지만’, 후자(‘그 의자의 표면은 무겁다’)의 경우는 ‘무의미하게(unsinnig)’ 됨을 통해 밝혀진다. 두 문장(‘그 의자는 갈색이다’와 ‘그 의자의 표면은 갈색이다’)에서 통념적으로 생각되는 동일한 술어, ‘갈색이다’는 동일한 기호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언어(문장)는 ‘완전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언어 분석’을 통해, ‘그 의자는 갈색이다’와 ‘그 의자의 표면은 갈색이다’는 서로 다른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게 것이다. 만일 그 ‘논리적 형식’이 주어-술어 형식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주어-술어 형식임이 밝혀지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완전히 분석된 언어, 즉 요소 명제의 논리—‘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를 통해, 일상 언어에서는 감춰져 있는 그 고유의 ‘논리적 형식’을 해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23) Wittgenstein (1984c), S. 46.

24)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전제하는 ‘논리적 형식’의 허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해서 말한다: “요소 명제의 모든 영역에 대해 유효한 하나의 원칙은 내 생각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요소 명제들의 형식은 예견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주어-술어 형식 또 이항관계 형식 등의 일상 언어의 일반적인 형식을 통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완전한 언어 분석을 통해 언어(문장)의 진정한 구성요소가 ‘단순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의 결과에 이른다. 또 그는 ‘이름들의 논리적 구분론’을 통해 언어의 뜻 있음(말할 수 있음)의 한계를 ‘언어 내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논리(이름들의 논리적 구분론)를 통해 “비로소” ‘논리적 형식’이 “확정”된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것은 언어가 세계와 공유하는 ‘세계의 본질’로 볼 수 있겠다 (3.327).

“명제는 전체 현실을 묘사할 수 있지만, 현실을 묘사할 수 있기 위해서 명제가 현실과 공유해야 하는 것—논리적 형식—을 묘사할 수는 없다.” (4.12)

“명제는 논리적 형식을 묘사할 수 없다. 논리적 형식은 명제에서 반영된다.

언어에서 반영되는 것을 언어는 묘사할 수 없다.

언어에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명제는 현실의 논리적 형식을 보여준다.

명제는 현실의 논리적 형식을 내보인다.” (4.121)

비트겐슈타인은 요소 명제를 “이름들이 함수”로 보고 “ $fx$ ”, “ $\phi(x, y)$ ” 등으로 표기한다. 또 “ $x$ ”, “ $y$ ” 등의 문자를 가변적 ‘이름’으로 본다(4.24). 하지만 위(빈 학단과의 대화) 진술로부터 ‘ $f$ ’와 ‘ $\phi$ ’ 그 자체는 어떤 ‘단순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x$ 는 갈색이다’는 ‘ $fx$ ’로 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술어처럼 보이는 ‘ $f$ ’는 좀 더 분석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논리적 형식’을 해명하는 요소 명제의 표기법을 구성해 볼 수 있다. ‘ $f$ ’는 예를 들어, ‘이름’ ‘ $a$ ’와 ‘연계하는 다른 이름’을, 그 요소 명제가 두 개의 이름들 ‘ $a$ ’ 그리고 ‘ $b$ ’로 이루어진 경우, ‘ $b$ ’로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소 명제 ‘ $fa$ ’는 ‘ $a-b$ ’로 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적 ‘이름’ ‘ $x$ ’의 함수로서의 요소 명제는 ‘ $fx$ ’ 뿐만 아니라,

‘x-b’로도 표기할 수 있다. ‘a’와 ‘b’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문장의 뜻 있음은 언어 외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요소들(‘a’와 ‘b’)의 ‘언어(문장) 내에서’ 올바른 구문론적 사용을 통해 주어진다. 그리고 그를 통해 비로소 ‘논리적 형식’을 ‘x-y’로 확정짓는다. 이름 ‘a’가 문장 ‘a-b’에서 정당한 구문론적 기능을 하고 ‘b’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를 통해 문장 ‘a-b’의 뜻 있음이 주어지고, 그를 통해 비로소 그 ‘논리적 형식’은 ‘x-y’로 확정된다. 요소명제 ‘fa’가 반드시 두 개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것이 세 개의 이름 ‘a’, ‘b’ 그리고 ‘c’로 구성되어 있다면, ‘fa’에서의 ‘f’는 ‘-b-c’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변 이름 ‘a’의 함수 ‘fx’는 거기서 또한 ‘x-b-c’로 표기될 수 있다. ‘fa’의 뜻 있음은 세 개 이름들(‘a’, ‘b’ 그리고 ‘c’)의 올바른 구문론적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때야 비로소 그 ‘논리적 형식’은 ‘x-y-z’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sup>25)</sup>

‘논리적 구문론(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논리적 형식’은 뜻 있는 언어를 통해 ‘말할 수 없고’, 그를 통해 오로지 ‘드러나는(보여지는)’ ‘세계의 본질’이다 (4.121 참조). 비트겐슈타인은 4.121에서 세계 본질인 ‘논리적 형식’이 오직 ‘드러남’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의 형이상학이 신비주의적인 것임을 말한다.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말해질 수 없다.” (4.1212)

25) 여기서 요소 명제에 대한 이해는 많은 부분 앤스컴(Anscombe)의 해석에 의거한다. Anscombe (1963), p. 101. 본 글의 본문에 함축되어 나타나듯이, 필자는 ‘이름’이 개별적 대상(Einzelding)만을 대표하고, 속성 그리고 대상들의 관계를 지시한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 또한 많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Stenius (1960), M. Hintikka & J. Hintikka (1986) 등을 참조하시오. 그리고 필자의 관점과 유사한 주장에는 Anscombe (1963) 외에 또한 Griffin (1964), Fogelin (1976) 등을 참조하시오.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6.44)  
 “실로 언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드러난다, 그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6.522)

세계가 ‘어떻게 있음’에 대한 이해는 『논고』 초반부의 형이상학에 해당한다. 그것은 뜻 있는 언어를 통해, 그것이 참일 때, ‘말 되어지는(언표되는)’ ‘사실들의 총합’이라는 세계 이해이다. 그에 반해 ‘세계가 있음’ 자체에 대한 이해는 뜻 있는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논리적 형식(세계의 본질)’들에 대한 파악이다. 뜻 있는 언어의 (진정한) 구성요소—‘이름’—들의 적법한 구문론적 효용이 확인되면 그 때 비로소 그 언어의 ‘논리적 형식’이 이해되는데, 그것은 또한 이 세계가 공유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세계와 공유하는 뜻 있는 언어의 ‘논리적 형식’은 ‘있는 세계’의 내용인데, 그것은 ‘언표될 수 없다(말 되어질 수 없다)’. 요소명제 ‘a-b’의 ‘논리적 형식’은 그것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x-y’라고 확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논리적 형식’은 다시금 ‘어떤 x는 다른 어떤 y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12 참조). 6.113(본고 1절)에서 보았듯이, 언어(문장)의 참은 우연적 참이거나 항진의 경우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진리인 듯 보이지만, 당연히 항진은 아니다. 또 현실과의 일치로부터 참이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문장(‘어떤 x는 다른 어떤 y와 어떤 관계에 있다’)은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 거짓의 중립성을 갖지 못하고 뜻 있는 문장이 아니다. 따라서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을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지만, 오직 드러날(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표현한다 (4.121 참조). 뜻 있는 언어에서 오직 ‘드러나는’ 것은 세계의 본질인 ‘세계의 형식’이며, 그것에 대한 파악은 진리로서 불가능하므로 신비로운 것으로 규정

된다. “신비주의로 향함은 학문을 통한 우리의 추구가 불만족 됨에 기인한다.” (『일기』, 1915년 5월 25일) 그리고 “세계의 논리”로서 세계의 형식에 대한 파악은 “모든 참 거짓에 앞선다.” (『일기』, 1914 10월 18일)

이제 형이상학에 관해 『논고』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는 다음의 진술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말해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자연 과학의 명제들—그러므로 철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가 그의 명제들 곳에 있는 어떤 기호들에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것이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 방법은 그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럽겠지만—그는 우리가 그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리라—이 방법이 유일하게 엄격히 올바른 방법이다.” (6.53)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의 내용이 가정형—“일 것이다(wäre)”—으로 진술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언어의 진정한 구성요소들인) ‘이름’들이 지칭하는 ‘단순한 대상’들이 과연 무엇인지 밝혀지는 조건을 말한다. 그 발견은 당연히 (자연) 과학자들의 몫이다.<sup>26)</sup> 그 발견의 경우에 비트겐슈타인은 “자연 과학의 명제들”의 다름을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그는 우선 세계의 본질에 관한 어떠한 형이상학적 진술도 ‘뜻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 ‘뜻 없음’은 『논고』 초반부의 형이상학적 진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뜻 없음’의 이유는 형이상학적 문장들에서 그 구성기호들이 적법한 구문론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서 기호들은 적법한 구문론적 효용을

26) 이 점에 대해 비트겐슈타인과 노만 말콤(Norman Malcolm)이 나눈 대화가 남아있다. Malcolm (1958), p. 86.

갖지 못하므로, 그 기호들의 ‘의미’ 또한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진술은 참, 거짓의 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가능한 현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뜻 없는’ 언어이다.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자연 과학의 명제들”을 다루면서, 그것의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논리적 형식’을 파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7)</sup> 그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이 무엇이라고 정작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 역시 폐기해야 할 철학적 방법이다. 그것은 “엄격히 올바른 [철학적] 방법”이 될 수 없다. “자연 과학의 명제들”에서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논리를 통해 어떠한 형이상학을 이끄는지 다루었다. 필자는 언어의 뜻 있음이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규정되는 한, 그로부터 이끌어지는 세계관은 ‘사실의 총합’으로서의 세계 인식이 아니라, 세계와 공유하는 언어의 ‘논리적 형식’에 대한 이해라고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 (5) ‘사실들의 총합’이라는 세계관은 언어 논리에 기초한다. 언어 논리는 언어 분석이 적용된 결과인데, 언어 분석의 수행에는 언어의 (가능한)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음’의 특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6) ‘사실들의 총합’이라는 세계관은, 뜻 있는 언어가 참일 때,

27) 유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묘사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115)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이해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연적 세계 이해의 내용이고 철학적 세계관일 수 없다.

- (7) 언어의 뜻 있음(말할 수 있음)의 논리를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이며, 그 이해야말로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관이다.
- (8)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은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가 ‘말하는’ 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파악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남는다.

#### 4. 결론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종합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 이 언어 논리를 오로지 ‘언어 내에서’ 한계 짓고자 했다면, 그것은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이어야 한다. 일상적 의미에서 구문론(문법) 또한 ‘언어 내에서’ 언어의 논리를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는 언어 분석의 결과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언어 분석은 언어가 ‘말할 수 있음’의 특성이 고려되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언어가 가능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분석된 언어는 ‘단순한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들의 연계이다. 그러므로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의 논리는 ‘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에 의해 적절히 ‘언어 내에서’ 제시된다. 나아가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 논리는 정당하게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이끈다. 언어 논리(이름들의 논리적 구문론)를 통해 문장의 뜻 있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보여지는)’ ‘논리적 형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언어의 ‘논리적 형식’

은 이 세계와 공유해야 하므로 세계의 본질 또는 ‘세계의 형식’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는 다시금 실재의 그림 또는 참인 언어로써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뜻 있는(말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논리적 형식(세계의 형식)’에 대해 (진리로서) 발화될 수 없음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논리를 통해 형이상학을 이끌어 내는데, 그의 형이상학은 어떤 진리가 아니라 신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본고의 논의부터 다음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 또는 그 뜻 있음을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규정하려 할까? 본고는 본문 시작에서 『논고』 머리말 진술을 다루면서 이 점을 무시하고 지나쳤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말함 또는 뜻 있음의 규정을 ‘언어 밖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언어 분석과 연관 지어 볼 때, 그의 언어 논리의 규정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언어 분석이 언어의 ‘의미론적(semantisch)’ 특성이 고려되어 수행될 때, 왜 언어 논리는 오로지 ‘언어 내에서’ ‘구문론적으로(syntaktisch)’ 규정되어야 할까? 본 글에서는 언어의 뜻 있음을 그것의 말할 수 있음과 동일하게 보았다. 거기서 언어의 말할 수 있음이란 또한 모사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언어의 뜻 있음을 구문론적으로 ‘언어 내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 의미론적 분석 결과를 직접 그 논리로 내세울 수는 없을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완전한 분석을 통해, 그것(말할 수 있는 언어)은 ‘단순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의 연계임이 밝혀졌다. 동시에 언어 분석의 결과를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논리적 형식’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논리적 형식’이란 사실,—언어 분석에서 밝혀지는—‘이름’들에 대한 변항(가변이름)들의 결합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룬 언어 분석과 언어 논리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예를 들어, ‘노퉁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의 뜻 있음은

그 언어(문장)의 말할 수 있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완전히 분석된 요소 명제 'A-B-C-D'에서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의 뜻 있음은 구성 요소들로서의 모든 '이름'들('A', 'B', 'C' 그리고 'D')이 적절한 효용(구문론적 기능)을 갖고 있음으로써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어 논리로부터 이끌어지는 세계관은, 그것(언어 논리)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논리적 형식(x-y-z-r)'의 이해이다. 하지만 거꾸로, '의미론적 언어 분석'의 결과를 직접 언어 논리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노퉁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의 뜻 있음은 그것의 완전히 분석된 요소 명제 'A-B-C-D'와 실제와의 관계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노퉁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다'의 뜻 있음, 각각의 구성요소('이름', 'A', 'B', 'C' 그리고 'D')가 '단순한 대상'들 'A', 'B', 'C' 그리고 'D'에 대응함, 그리고 그 문장이 'x-y-z-r'라는 '세계의 형식(논리적 형식)'을 가짐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름'들이 '단순한 대상'들에 대응함 그리고 문장이 세계의 논리적 형식을 공유함은, 사실 『논고』의 이른바 '그림 이론(Bildtheorie)'의 핵심 내용이다. 많은 해석자들은 '그림 이론'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논리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림 이론'이란 언어의 '말할 수 있음'(또는 '모사할 수 있음')의 특성을 직접 반영하여, '그림'으로서 뜻 있는 언어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이론이다. 대표적으로 앤스컴은 '그림 이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그림 [...] 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들이 속해 있을 것이다. 첫째, 그림의 요소들 간의 관계, 둘째, 그림의 요소들과 그 그림 밖의 대상들과의 대응들이 그것이다 [...]”<sup>28)</sup>

“그림의 요소들 간의 관계”는 세계의 대상들 간의 관계 가능성을

<sup>28)</sup> Anscombe (1963), p. 68.

의미하므로, ‘논리적 형식’을 뜻한다. 일반화 시켜 보자면, 언어(문장)의 뜻 있음은 언어의 진정한 구성요소인 ‘이름’들이 언어 밖 ‘단순한 대상’들에 각각 대응하고, 그 언어(문장)는 ‘논리적 형식’을 반영하는 한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이론’의 내용은 정작 『논고』의 본문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언어(그림)의 구성요소 ‘이름’-들과 그 밖 ‘단순한 대상’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1514와 2.1515에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언어(그림)가 ‘논리적 형식’으로서 “모사 형식(Form der Abbildung)”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는, 특히 2.15, 2.151에서 진술되고 있다.

‘그림 이론’은 언어의 뜻 있음을 ‘의미론적 언어 분석’의 결과를 통해 직접 규명하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이론’은 『논고』의 머리말 진술(“[...] 한계는 오직 언어에서만 그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한계 건너편에 놓여 있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가 될 것이다.”)에 위배된다. ‘그림 이론’은 뜻 있는 언어의 한계를 ‘언어 내에서’가 아니라, ‘언어 외부에서’ 또는 ‘언어와 언어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림 이론’에 따르면, 문장 ‘A-B-C-D’의 뜻 있음은 모든 ‘이름’들(‘A’, ‘B’, ‘C’ 그리고 ‘D’)이 언어 외적 ‘단순한 대상’들에 대응함 그리고 그 문장 형식이 언어 외적 세계의 형식 ‘x-y-z-r’과 동일함의 전제를 통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만일 ‘그림 이론’이 비트겐슈타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언어 논리라고 한다면, 그는 머리말 진술을 스스로 어긴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논고』 위 머리말 진술에서 그의 확고한 주장을 한다면, 그 저작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그림 이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왜 그는 그가 의도하지 않는 언어 이론을 스스로 그 저작의 내용으로 진술했을까? 그 답은 위 질문 “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뜻 있음을 오로지 ‘언어 내에서’ 규정하려 할까?”의 해결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진호 (2009),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철학적 분석』 제 20호, 한국분석철학회, pp. 85-117.
- Anscombe, G. E. M. (1963),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London: Hutchinson (2nd ed.).
- Black, M. (1964),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Cambridge: CUP.
- Diamond, C. (1988), “Throwing Away the Ladder: How to Read the *Tractatus*”, in *Philosophy*, 63, pp. 5-27.
- Gabriel, G. (1991), *Zwischen Logik und Literatur: Erkenntnisformen von Dichtung, Philosophie und Wissenschaft*, Stuttgart: Metzler.
- Fogelin, R. (1976), *Wittgenstein*, London: Routledge.
- Griffin, J. (1964), *Wittgenstein's Logical Atomism*, Oxford: Clarendon.
- Hintikka, M. & Hintikka, J. (1986), *Investigating Wittgenstein*, Oxford: Basil Blackwell.
- Ishiguro, H. (1969), “Use and Reference of Names”, in P. Winch, (ed.),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20-50.
- Kienzler, W. (2008), “Neue Lektüren von Wittgensteins Logisch-Philosophischer Abhandlung”, in *Philosophische Rundschau*, 55, S. 95-122.
- Malcolm, N. (1958), *Ludwig Wittgenstein, A Memoir*, London: OUP.
- McGuinness, B. (1981), “The So-called Realism of Wittgenstein's *Tractatus*”, in I. Block, (ed.),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London: Basil Blackwell, pp. 60-73.

- Stenius, E. (1960), *Wittgenstein's Tractatus*, Oxford: Basil Blackwell.
- Rhees, R. (1970), *Discussions of Wittgenstei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inch, P. (1987), *Trying to Make Sense*, Oxford: Basil Blackwell.
- Wittgenstein, L. (1979), *Notes on logic*, in G. H. von Wright and G. E. M. Anscombe (eds.), *Notebooks 1914-1916*, Oxford: Basil Blackwell (2nd ed.), pp. 93-107.
- Wittgenstein, L. (1984a), *Tagebücher 1914-1916*, in: *Werkausgabe Band I*, Frankfurt am Main: Suhrkamp, S. 87-187.
- Wittgenstein, L. (1984b),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in *Werkausgabe Band I*, Frankfurt am Main: Suhrkamp, S. 225-580; 이영철 옮김 (2006),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 Wittgenstein, L. (1984c), *Wittgenstein und der Wiener Kreis*, *Werkausgabe Band 2*, B. McGuinness (eds.), Frankfurt am Main: Suhrkamp.
- Wittgenstein, L. (1989), *Logico-philosophische Abhandlung: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Kritische Edition*, B. McGuinness und J. Schulte (eds.), Frankfurt am Main: Suhrkamp; 이영철 옮김 (2006), 『논리-철학 논고』, (서울: 책세상).
- Wittgenstein, L. (1995), *Cambridge Letters: Correspondence with Russell, Keynes, Moore, Ramsey and Sraffa*, (eds.) B. McGuinness and G. H. von Wright, Oxford: Basil Blackwell.

제주대학교 철학과 강사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yjbyun21@hotmail.com

## ARTICLE ABSTRACTS

---

### Wittgenstein's Logic of Language and Metaphysics

Youngjin Byun

---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which logic of language and which metaphysics Wittgenstein suggests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I will ultimately show how he bases the metaphysics on the logic of language. The logic of language by which Wittgenstein sets the limit to the language 'in the language' is the logical syntax of the language. And Wittgenstein extends the idea of the logical syntax to the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world, i.e. to the metaphysics. The logical form the language(proposition) must have is the form of the world(or the nature of the world), and it can be determined only together with the logical syntax of the language. But what is the logical form(form of the world) 'cannot be said', since the proposition saying it is devoid of 'sense' and 'says nothing'. Therefore Wittgenstein expresses that the logical form(form of the world) 'can only be shown' in the proposition that has sense. The

Metaphysics Wittgenstein wants to base on the logic of language(the logical syntax) must be mystical.

Key Words: Wittgenstein, Logic of language, Metaphysics, Logical syntax, Saying and showing of language.